

남원시 가스자원화 발전실패

피해최소 대응방안 추진...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위해 4단 제방으로 증축키로

이원주 남원시장이 생활폐기물 가스 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또, 남원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시청회의실에서 가스 자원화 발전시설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시급한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현 3단 제방에서 4단 제방으로 증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국비 6억원의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하길 기대했다.

또, 현매립장을 3만평방미터 확장하는데 필요한 120억원 중 국비 36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환경부로부터 2018년에 반영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현재 매립장 관련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소각장설치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 등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남원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투자한 66억원의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등에서 보유한 채권은 총 75억으로 기성금 32억과 공사이행보증금 43억원이 있다. 이 시장은 이 기금이 남원시에 반환되도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가스자원화 연구개발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환경부가 64억, 남원시가 66억, 한국환경공단이 현물 7억 등 총 13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했다.

당시 남원시는 대산매립장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대산매립장 매립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의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다.

또,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6억여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1년간 운영비 16억중 6억은 전기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원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신뢰하고 이 사업을 유지하면 시 재

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매립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초 연구사업 계약기간은 2010년 10월1일 부터 2014년 5월31일 까지였으나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과정상 문제로 2회에 걸쳐 1년연장을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승인하여 2015년 5월15일 까지 연구기간이 연장되었다.

2015년 8월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1차 평가결과 보류가 되었으며 2차 평가시에는 한국환경공단이 2016년 4월30일까지 800KW/h 전력생산, 14일 연속가동 조건의 환경신기술 인증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성공'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 포스코플랜텍간의 기술적 문제에 부딪혀 지난 2015년 12월25일 시운전 및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신기술 인증기한인 4월30일까지 신청을 못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통보 받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재해우려지역·주요 현안 사업장 점검

지방하천사업과 방조제 개보수 등 2개소·성내면 학동경로당 신축 사업장 등 3개소 방문

박우정 고창군수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 군수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집중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8일 재해우려 지역 사업장과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방하천사업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 재해우려지역 사업장 2개소와 성내면 학동경로당 신축 사업장 등 현안사업장 3개소를 방문했다.

박 군수는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마와 폭우에 대비해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계획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오순도순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동경로당 신축공사 현장 방문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과 고창을 생활아구 경기장 조성사

업 현장에서는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휴식공간과 경관을 최대한 확보해 아름다운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고창군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사업장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해 박우정 군수와 전 공직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상수도 사업소 유관기관 상생·화합행사 개최

즉구경기 통해 지속적인 우호협력 관계 도모·민속씨름 대회 부상자 격려금 마련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8일 남원시씨름협회, 남원교통초등학교와 즉구경기를 통한 지속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지난 민속씨름 대회 부상자의 격려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 교통초등학교 강당에서 유관기관 상생·화합행사를 개최하였다.

세 기관은 지난 5월에 개최한 제86회 춘향제 기념 민속씨름대회를 상수

도사업소가 담당하게 되면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남원시 씨름협회와 업무협의를 주고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용경 남원 교통초등학교 교장은 남원시 씨름협회장을 오랜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한 적이 있어 남원시 씨름협회와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세 기관이 한데모여 친목과 화

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속씨름'이라는 카테고리도 함께 묶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즉구경기에서 각 기관은 서로 열띤 응원전 속에 전문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었으며 친목과 화합의 행사이니만큼 부상자 없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영농철 마을 공동급식 제공

40일간 조리원 인건비·부식비 지원... 11개마을을 참여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복분자와 수박 출하가 본격화 되고 있는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와 여성농업인들과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마을 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 급식은 마을회관 취사시설 등 공동 급식시설이 구비되고 참여 인원이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 40일간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에서는 현재 1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고수면 황산마을 안재연 이장은 "매일 주민 30여명이 바쁜 영농기 오전 일을 마치고 마을회관에서 제공하는 위생적이고 양질의 점심을 함께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하고 영농 정보 교환도 하면서 주민 화합의 기회도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공동 급식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고수면 황산마을 현영숙 부녀회장은 "공동급식을 준비하면



군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마을 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 농번기철 바쁜 와중에 식사 준비까지 하면서 힘들었던 여성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공동 급식이 더 많은 마을로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보건소, 치매예방 나서



남원시 보건소, 치매예방 나서

남원시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70세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오감자극 두뇌발전소' 프로그램을 5월부터 매주 총 6회기에 걸쳐 운영 중이다.

주천면 하송마을과 왕정동 명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25명을 모시고 1교시는 치매의 이해, 중풍예방, 영양교실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2교시는 공예(방향제, 팔찌), 허브체험(허브 비누), 요리교실(떡), 치매예방 건강운동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2교시 수업은 어르신이 직접 만들고,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호응도에 따라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치매 걱정 없고, 노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 063)620-7994, 793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보건소, 청소년정신건강강화

고창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개강좌가 열렸다.

8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는 군민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답하라 중2병'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 등을 설명했다.

강좌는 고창군보건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1부 '말 안 듣는 청소년', 2부 '어떻게 도와주지'를 주제로 영광기독신학원 임소연 강사(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특별 초빙하여 진행했다.

강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고 효율적인 양육 방법과 상담기법(감정코칭) 등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563-8751~2, 8738~9)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모양지구대, 112신고표지판 부착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 모양지구대(대장 권기홍)에서는 최근 강남역 물자 마 살인사건 관련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 여성전용 시설물인 교직원 연립사택, 여성전용 원룸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CCTV 등 방범시설을 점검하여 추가설치 등을 권고하고 주야간 특별순찰선으로 지정하여 집중 순찰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 현장 신속출동을 위하여 신고자가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장소를 여성 상태 범죄 우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부착한 112신고위치표지판을 추가 제작했다.

고창을 월곡택지공원 화장실 등 기존 13개소를 포함, 석정 펠라크 시티내 외정공원 화장실 등 13개소에 추가 부착하여 현재 26개소 운영 중에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